

낙농정책연구소 낙농소식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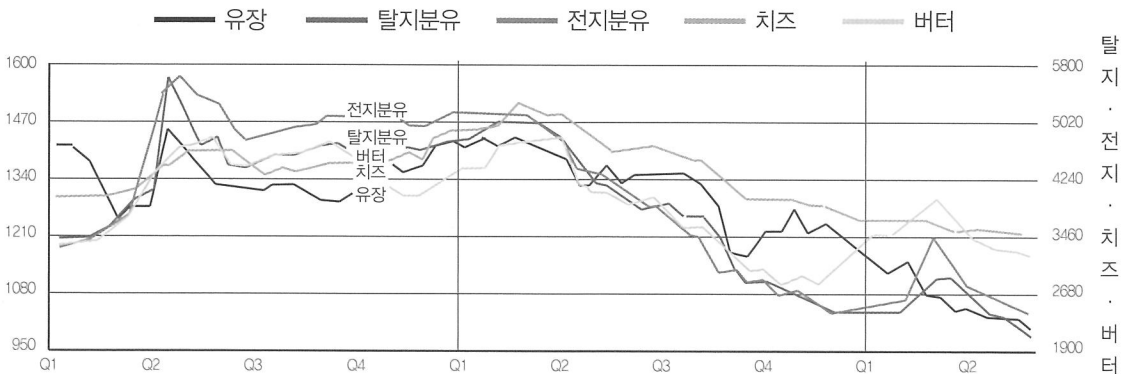
국제유제품시장의 약세 지속

국제유제품가격이 최근 6년 이래 최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서서히 균형을 되찾아 가고 있으나 아직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하기 위해서는 보다 오랜 시간에 걸쳐 생산을 감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지난해와 같이 중국과 러시아의 대량수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시장의 공급과잉을 해

2015년 1/4분기 현재 주요 유제품 수출국의 원유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 0.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4월에 접어들면서 유럽과 오세아니



자료: USDEC

아의 생산이 본격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미국 낙농이 치열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2015년 1~4월에 걸쳐 중국의 유제품수입이 40% 감소했으며, 이는 월평균 56,200톤의 재고누증과 맞먹는 양이다. 또한 이는 주요 5개 유제품 수출국의 원유생산이 2.4% 증가한 것에 상당하는 효과다.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또한 지난해 수입량에 비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양만을 단지 벨라루스로부터만 수입하고 있어 재고해소를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가운데 타 수입국의 수입량은 다소 늘었지만 현재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제시장의 수급상황을 넓게 보면, 수입국은 가격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여건 속에서 수입을 늘릴 필요를 못 느낄 만큼 충분한 재고를 보

유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여건에 따라 세계 주요 유업체들의 하반기 유대협상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다국적기업인 폰테라는 2015/2016년도 유대와 관련하여 국제시장의 가격약세를 강조하면서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앞으로도 당분간 국제시장의 유제품 가격은 약세를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즉, 현재 연말까지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재고를 보유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2016년까지도 가격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출처 :

<http://www.usdec.org/assets/Documents/Supplier%20Site/Member%20Services/Periodicals/Global%20Dairy%20Market%20Outlook/GDMO060115.pdf>

번역 및 요약 :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

일본의 TPP 유제품 협상

최근 실패로 끝난 TPP 각료회의에 있어서 지금까지 드러난 일본의 낙농부문 협상결과와 대응방안을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일본은 유제품의 경우 현재는 원유환산 13.7만 톤에 달하는 무관세쿼터를 허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200~300%의 고율관세

를 부과함으로써 국내 유제품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TPP 협상을 통해 일본은 무관세 쿼터를 초과하는 수입에 대한 고율관세는 유지하되, TPP 참가국(미국,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에 대한 무관세쿼터 자체를 원유환산으로 7만 톤 정도로 추가 허용하는 선에서 타협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미국은 뉴질랜드나 호주에 비해 낙농부문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진다. 따라서 유제품에 관한 전면적인 관세철폐보다는 호주, 뉴질랜드로부터 미국으로의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을 일본, 캐나다의 무관세 쿼터의 확대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 했으나 뉴질랜드의 요구가 예상외로 강했기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본의 대내적인 낙농정책과 관련해서는, 현행의 kg당 약 10엔의 「고정직불금」으로는 사료가격이 높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농의 생산기반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획기적인 지원책은 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의 낙농업계에서는 최소한 생크림용 원유에 대해서 만이라도 버터, 탈지분유, 치즈용 원유와 같이 보급금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쇠고기에 대한 관세인하가 낙농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고려할 때 낙농의 생산기반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뉴질랜드의 다국적기업인 폰테라는 TPP 타결에 앞서 이미 일본 내에서 낙농가에 대한 기술지원을 시작으로, 장차 원유의 직거래까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기 시작한 상태다.

즉, 폰테라 재팬은 대규모 유통업체 사장들을 초청하여 이들과의 연계를 통해 금후 유제품은 뉴질랜드에서 직접 수입하고, 북해도산 원유를 이용한 음용유를 혼수는 물론, 한국, 중국 등 아시아에까지 수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일본 내 유업체에 대한 자본참여 및 매입까지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동경대학 스즈키 노부히로 교수
번역 및 요약 :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

홋카이도 농업협동조합연합회, 홍콩에 L.L우유 수출

호꾸렌(홋카이도 농업협동조합연합회)은 2015년 8월부터 점차 홍콩시장을 겨냥한 L.L우유의 수출전략을 쇄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우유팩에 「호


꾸렌」과 북해도산 우유의 소비캠페인을 위한 로고인 「MILKLAND Hokkaido」를 부착하여 북해도의 색깔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하였다. 아울러 다른 북

해도산 농축산물과 함께 홍콩시장에서 강력한 「호꾸렌 브랜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호꾸렌이 홍콩에 수출하고 있는 LL우유는 ‘구미 아이유업(旭川市)’이 생산한 「북해도특선 3.6우유」다. 2014년도의 수출량은 1,850톤으로, 홍콩에 대한 일본산 우유의 약 70%를 차지하는 최우수 브랜드라 할 수 있다. 홍콩 현지에서의 소비자가격은 1리터가 약 20홍콩달러대 후반(1HKD=154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수한 맛, 안전, 안심, 북해도브랜드에 대한 높은 인기로 인해, 홍콩 현지의 거의 모든 유명한 대규모슈퍼에 있어서 인기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금번 호꾸렌이 홍콩에 대한 LL우유의 패키지를 새롭게 단장함과 아울러 북해도의 색깔을 강하게

나타내게 된 것은, 홍콩 현지에 있어서의 북해도 붐을 타고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케팅전략이다. 지난 8월 13일에서 17일에 걸쳐 홍콩 최대 규모의 국제종합식품전인 「Food Expo 2015」가 개최되었다. 여기에 마련된 북해도산 농축산물 부스에서 MILKLAND의 로고를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등 북해도의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다. 금후에도 호꾸렌의 제품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쇠고기, 감자, 양파 등 우유 이외의 북해도 산 농산물과 함께 브랜드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호꾸렌은 「LL우유에 이어 또 다른 신제품을 투입함으로써 홍콩시장에 대한 북해도산 우유수출을 2,000톤 수준까지 끌어올리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 일본중앙농회의 뉴스(116호, 2015. 8.20)
번역 : 낙농정책연구소 소장(영남대 명예교수) 조석진

